

“생생하게 마주한 자연의 순간 꾸준히 담아냈죠”

고희자 송원대 교수 '백색의 시선, 자연의 호흡'展...26일까지 무등갤러리

눈으로, 발로 보고 담은 현장 스케치 기반 작업 한자리
자연의 영감 속 띄워낸 감정의 정화, 송이 송이 피워내



폭에 담은 고희자(사진) 작가가 열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백색의 시선, 자연의 호흡'을 주제로 펼쳐진다.

전시 주제는 김익두 문학평론가(전북대 명예교수)가 작가의 작업을 보고 '백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낀 감정은 사진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차이가 그림에서도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송원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30여 년간 자연을 화

색'의 깊이를 짙어낸 데서 착안했다. 오랫동안 자연과 풍경을 주제로 쌓아온 작업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선보여진다.

전시에는 지난 20여 년 그려온 대표작 중 50여 점을 선별해 걸었다.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자연'을 캔버스에 담은 그는 현장을 직접 걷고 스케치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체코 프라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해외 도시는 물론 해마다 나주 금천의 배나무, 구례 산동 산수유, 섬진강 일대의 매화, 순천 월등면 복숭아꽃을 찾아다니며 자연의 변화와 결을 눈으로 확인해왔다.

‘독일 백조의 성’을 그릴 당시에는 배낭을 메고 산 정상까지 올라 바위 위에서 스케치를 했을 정도로 현장성에 대한 애정이 깊다.

작가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흰색



‘소년상’

이다.

피사체의 외곽을 따라 흐르는 백색, 풍경 속에 점점이 박힌 흰 꽃, 산봉우리에 두드러지는 흰 터치 등에 자연스레 시선이 따른다.



‘나주 금천의 봄’

그는 작가노트를 통해 “어린 시절, 겨울이면 메마른 가지만 남긴 집 뒤뜰의 나무가 떠오른다”며 “황량해 보이던 나무가 봄만 되면 노란 꽃을 틔웠고, 그 작은 빛깔이 어린 나에게 큰 위안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작가는 “그림 앞에 앉아 있을 때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고요히 정화되는 듯하다”며 “자연에서 얻은 영감은 지난 세월의 흔적이다.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이 한 송이 한 송이 그림으로 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표현 방식도 돋보인다. 먹물·수채·콘테·오일물감 등을 혼합해 절제



‘독일 백조의 성’

된 색감과 몽환적 분위기를 함께 살려냈다. 작가는 “봄을 잡는 순간 무한한 자유를 얻는다”며 “바람에 흔들리는 꽃, 물결 위의 반사, 거리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물처럼 스며들어 한 폭의 그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작가는 지역 미술단체 황토화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황토화는 오지호·배동신·김인규·최용갑·김수호·강동문 등을 중심으로 1970년 창립전을 연 이후 50여 년간 지역의 미술발전을 이끌어온 단체다. 광주·전남 지역 서양화 흐름 안에서 구상·비구상 평면작품을 중심으로 단체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명진 기자

예향 광주 예술혼, 일본서 울려 퍼지다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해외교류공연, 내달 2일 가고시마현민교류센터

㈜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재)가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지원·관리 사업의 하나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일본 가고시마현 공연’을 마련한다.

공연은 오는 12월2일 오후 6시30분 가고시마현민교류센터(현민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친선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교민들에게는 향수를 달래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본 시민들에게 한국 전통국악의 진수를 소개하고, 예향 광주의 예술혼을 알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한다. 사카모토후미오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교민, 상사원, 현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방울국악진흥회는 2010년부터 해외 공연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임방울국악제 세

계화와 수상자 사기진작에 기여해왔다. 이번 가고시마 공연 역시 수상자들의 역량을 현지 무대에서 펼치는 자리로 구성됐다.

무대는 올해 농악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굿패미단 농악단 정동찬 외 5인의 신명나는 풍물판굿으로 문을 연다. 이어 올해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정훈 명창이 국창 임방울의 애창곡 ‘속대머리’와 심청가 중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두미지·강재인·이현지 양의 태평무, 기악일반부 국무총리상 수상자 유세운·김철환·한정민 명인의 기악산조 공연도 이어진다.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 임재현 명창은 춘향가 ‘사랑가 대목’ 가야금병창을 선보이며, 신술찬 외 7명이 무궁화를 형상화한 부채춤 무대를 올린다.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과 명창부 최우수상 수상자 김소진 명창은 ‘수궁가 중 고



제3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김정훈 명창(왼쪽)과 최우수상 수상자 김소진 명창

고천변’ 눈대목 입체창으로 무대를 빛낸다.

대미는 남도민요 연합 무대로 장식한다. 임지연 외 6명이 풍물판굿 팀과 함께 소고춤을 선보인 뒤 김찬미·김정훈·김소진·임재현 명창과 전 출연진이 ‘성주풀이’, ‘남한산성’, ‘진도아리랑’을 이어 부르며 흥겨운 무대를 완성한다. /최명진 기자



전통예술의 향기, ACC 통로에 흐르다

오는 30일까지 궁중 기록화가 이맹자 병풍 작품 7점 전시

영화 ‘파묘’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ACC 통로가 궁중 기록화로 채워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30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B2) 옆 통로에서 ‘궁중 기록화, 맥을 잇다’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곳곳이 문화예술로 채워진 ‘열린 예술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유희공간 활용을 기획하고, ACC 지하 2층 내 총 70m 길이 통로 벽면에 병풍 형태의 궁중 기록화를 설치했다.

이 공간에서는 광주에서 활동 중인 궁중 기록화가 송연 이맹자 작가 병풍 작품 7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작품은 작가의 대표작인 ▲수군 조

련도(200cmX552cm, 10첩·사진)를 비롯해 ▲수원화성능행도(205cmX608cm, 8첩) ▲곽분향행략도(182cmX310cm, 10첩) ▲오지연도(183cmX360cm, 8첩) ▲태평성시도(185cmX472cm, 8첩) ▲평양감사행렬도(162cmX592cm, 8첩) ▲진찬도(181cmX368cm, 8첩)이다. ACC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전시 공간, 전시장 구축, 개막 행사 등을 작가와 협력해 지원했으며, 전시 후 추후 공간 활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오랜 시간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작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창·제작 기능을 갖춘 ACC와 함께 성장하며 한국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